



# 삼성전자·애플, 특허전쟁 화해모드 'ON'

### 美 제외 8개국서 모든 특허 관련 소송 철회 합의 가장 중대한 미국 재판에 집중하려한다는 분석도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양사가 진행해온 모든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는 양사간 특허 라이선스 협의와 관련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양사는 설명했다.

비록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사가 '세계의 소송'으로 불릴 정도로 격렬하게 진행됐

던 특허소송중 미국의 지역의 소송을 철회기로 합의함에 따라 부분적인 화해 무드가 형성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사의 특허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양사 소송은 미국과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호주 등 9개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양사는 앞서 지난 6월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나란히 취하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

다. 애플은 지난달 말 자사가 승소한 미국 1차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이런 행보가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양사가 합의의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양사는 세계 어느 법원에서든 추가 소송을 벌이지 않은 점도 이 같은 예측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미국 1차 소송의 항소심이 곧 열릴 예정이고, 2차 소송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게 양사의 뜻인 만큼 양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양사가 실익이 없는 미국과 소송에서는 합의하고 미국 소송에 집중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 ITC 판정에 대한 항고 취하나 애플의 미국 1차 소송 항소 취하도 마찬가지로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사는 이번 합의가 언제 어느 자리에서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사안의 크기를 고려할 때 최고경영자(CEO)급 회담에서 결정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대표의 앞서 지난달 8~13일 미국 아이다호주 셉탈리에서 열린 앨런앤드코 미디어 콘퍼런스'에 함께 참석해 회동한 바 있어, 이 자리에서 이번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시 외신들은 이 부회장이 래리 페이지 구글 CEO와 긴장관계를 보였다는 사실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다. 애플은 지난달 말 자사가 승소한 미국 1차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이런 행보가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양사가 합의의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양사는 세계 어느 법원에서든 추가 소송을 벌이지 않은 점도 이 같은 예측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미국 1차 소송의 항소심이 곧 열릴 예정이고, 2차 소송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게 양사의 뜻인 만큼 양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양사가 실익이 없는 미국과 소송에서는 합의하고 미국 소송에 집중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 ITC 판정에 대한 항고 취하나 애플의 미국 1차 소송 항소 취하도 마찬가지로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사는 이번 합의가 언제 어느 자리에서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사안의 크기를 고려할 때 최고경영자(CEO)급 회담에서 결정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대표의 앞서 지난달 8~13일 미국 아이다호주 셉탈리에서 열린 앨런앤드코 미디어 콘퍼런스'에 함께 참석해 회동한 바 있어, 이 자리에서 이번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시 외신들은 이 부회장이 래리 페이지 구글 CEO와 긴장관계를 보였다는 사실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금주의 추천 앱

#### 세월호, 영원히 잊지 않기를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며 했던 말이다. 참사 110여일이 지난 지금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잊혀져가고 있는, 누군가는 지우려고 하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온라인 공간을 소개한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기억 0416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seulho-archives.org/](http://seulho-archives.org/)  
이곳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록 공간이다. 사진, 영상, 음성파일 그리고 사인이 담긴 이야기들이 모이는 곳이다.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각종 재능나눔과 기증이 줄을 잇고 있다.
- ◆기억 0416 [www.beautifulfund.org/camp/remember0416/index.php](http://www.beautifulfund.org/camp/remember0416/index.php)  
아름다운재단에서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세월호에 관한 기록 및 치유를 돕는 공간이다. 8월31일까지 모금을 통해 ① 참사 기록, ② 유가족 치유, ③ 안전지역 공동체 회복 위한 장기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진행한다.
-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0416.hani.co.kr](http://0416.hani.co.kr)  
한겨레 지면에 올라온 피해학생들의 부모님이 쓴 편지를 모아 추모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단원과 학부모님들의 절절한 심경을 편지에 실고 있으며, 학생들의 얼굴은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그렸다.

DESIGN ZOOZ 제공:디자인주스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 간편 결제·콜택시까지... KAKAO는 진화중

### 내달 '뱅크월렛카카오' 출시 공인인증 필요없는 결제 등 정보·생활 영역으로 확장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무기로 또 한 번의 '무서운 변신'을 꿈꾼다. 3700만 국내 가입자를 앞세워 '게임 중개업'으로 성공 기반을 닦았지만 모바일게임 플랫폼만으로는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카카오게임'은 2012년 단 10개 게임으로 출발, 2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5억 명을 넘기며 카카오를 모바일게임 플랫폼 업계의 최강자로 올려놓았다.

최근 카카오의 눈부신 성장도 광고가

아닌 게임 매출 덕분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출의 76%가 게임 부문에서 나올 만큼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분기엔 아예 매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대로 떨어졌다.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기로 결정했고, 그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은 절실했다.

카카오는 지난 상반기부터 사실상 금융업에 진출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뱅크월렛카카오'는 카카오가 가장 먼저 공개한 복안이었다. 카카오톡에 만든 가상 지갑 안에 최대 50만원씩 충전, 하루 10만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서비스다. 15개 시중은행은 앞다퉈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송금 서비스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카카오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번거로운 공인인증절차 없이 온라인 쇼핑물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카카오 간편결제(가칭)'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마침 미국의 '페이팔', 중국의 '알리페이'처럼 공인인증서 없는 결제 서비스 도입을 정부가 강조하고 나서면서 '카카오 간편결제'는 순풍에 돛을 달게 됐다. 시중 카드사 가운데 유일하게 카카오와의 협약에 주저하던 롯데카드도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간편결제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회사인 LG CNS인 탓에 일각에서는 LG CNS의 가맹업체 전반에 카카오 간편결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는 6일 '홍소영 업체들과도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온라인몰, 홍소영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결제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변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예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만한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게 목표다.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힌 '콜택시 사업'도 카카오가 그리는 미래 청사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카카오 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 정보 생활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콜택시 등 생활 전반에 편의를 가져다 주는 사업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 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애플 아이폰6 내달 9일 공개

### 4.7인치 화면 최초 장착

### 삼성 갤럭시 노트4와 맞대결

애플이 아이폰6를 다음 달 9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데일리텔레그래프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애플이 9월 9일 대규모 행사를 열고 아이폰6를 공개할 것이라고 6일 보도했다.

이날 아이폰6 공개 행사가 열린다면, 기존 관행을 고려할 때 아이폰6의 출시일은

다음 주 금요일인 19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6는 아이폰으로는 처음으로 4.7인치 화면을 장착하고 나올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5.5인치 화면의 패블릿(휴대전화와 태블릿PC의 합성)도 함께 출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다음 달 3일 독일에서 갤럭시 노트4 공개 행사를 열 계획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최고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6와 갤럭시 노트4의 맞대결이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음식물 싱크대에서 즉시처리!

## 분쇄·분해 후 하수관 배출! 7일 무료사용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 **싱크대 일체형으로 분쇄, 분해 후 하수관 바로 배출**  
(주)편한세상은 분쇄 후 2차미생물 분해 소멸방식으로 하수관으로 바로 배출되는 유일한 합법제품으로 100% 국내산 친환경제품입니다. - 올바른 제품 선택만이 소비자의 피해를 줄입니다. -
- **환경부 (2013-91)인증, KC인증 된 합법제품**  
(주)편한세상은 환경부인증(2013-91호)은 물론 KC인증과 전자파인증까지 받은 가장 이상적인 합법제품입니다. - 환경부 및 한국상수도협회에서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 -
- **KBS 등 방송3사에서 보도 된 합법제품**  
(주)편한세상은 이미 KBS 등 방송3사 뉴스에서 검증 보도된 합법제품입니다.
- **사용 및 유지관리가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주)편한세상은 적은 소음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처리시간 30초 이내로 아주 낮은 전기료(월 500원 미만)와 자체 세척기능이 탁월한 제품입니다.
- **완벽한 내구성과 고장률 "0%" 철저한 A/S**  
(주)편한세상은 AC모터와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전국 어디든 이진설치에도 자유로운 제품입니다.
- **주방 환경(위생) 획기적 변신**  
(주)편한세상은 그동안 주방에 모자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세균, 냄새, 벌레, 귀찮고 번거로움을 한번에 해결 함으로써 가정주방의 위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드립니다.



100% 국내산 합법제품!

가정용 | 업소용

**무료체험 7일**  
**무이자10개월**